

해체주의 확장에 따른 영화 타이틀 로고의 표현 경향 분석

An analysis on trends in movie title logo
affected by deconstructionism

주저자: 정수연 (Jeong, Sue Youn)

동양대학교 겸임교수

공동저자: 장훈종 (Jang Hun Jong)

LG 애드 CD

논문요약

Abstract

I.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II. 해체주의 형성과 확장

1. 해체주의 형성과 개념적 특징
2. 타이포그래피의 흐름과 해체주의의 확장

III. 영화포스터와 영화 타이틀 로고

1. 영화포스터에서의 영화 타이틀 로고
2. 한국영화 타이틀 로고 표현의 발전

IV. 한국영화 타이틀 로고의 해체적 표현 경향 분석

1. 표현 형태의 해체
 - 1) 글자의 파괴와 분열
 - 2) 자소의 분해와 변형
2. 표현 구조의 해체
 - 1) 글자크기의 합성과 배열의 변화
 - 2) 타입페이스 혼용
3. 표현 형식의 해체
 - 1) 형과 텍스트의 중첩과 결합
 - 2) 고정관념 탈피의 레이아웃

V. 결론

참고문헌

(Keyword)

Deconstructionism, Deconstructional Typography, Movie title logo

논문요약

1960년대 후반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에 의해 처음 논의된 해체주의는 사회, 문화, 예술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디자인 분야에서도 새로운 양식을 표출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타이포그래피에서의 해체현상이다.

영화 타이틀 로고는 1990년대 전문적인 타이포그래피의 등장과 다양한 서체 개발로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0년 이후 영화 타이틀 로고의 해체주의적 표현이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주의의 특징과 해체적 타이포그래피의 확장에 따라 2000년 이후의 한국영화 타이틀 로고의 해체주의적 표현 경향을 표현 형태의 해체, 표현 구조의 해체, 표현 형식의 해체 등으로 분석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한국영화 타이틀 로고의 사례 연구를 통해 표현 경향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Now the deconstructionism has influenced to social, cultural and artistic environments, which was brought by Jacques Derrida: French philosopher in late 60's.

Movie title logo which infected by deconstructional technic has been grown up since 90's

This research has focused on visual characteristic marks of deconstructional typography, and how it's used currently in Korean movie title logos.

Deconstructional typography is a creative & good method to approach publics, it shows better aspects in terms of not ruining it's own readabilities.

Also we tried to figure out right directions in that trend through many samples in Korean movie title logos.

I. 서론

1. 연구목적

사회, 문화, 예술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체주의는 디자인 분야에서도 새로운 양식을 표출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타이포그래피에서의 해체현상이다.

전통적 정형화를 거부한 자끄 데리다 등에 의한 철학상의 변화에 의한 해체주의 사상은 획일성, 동질성, 통일성 등의 합리주의적 전통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계속되는 새로운 조합의 추구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타이포그래피와 디자인은 직간접적으로, '해체(Deconstruction)'라는 개념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주의의 확장에 따라 전개된 해체적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시각적 특징들을 추출하고 한국영화 타이틀 로고의 표현 경향을 분석하는 연구로 해체적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추세를 분석, 검토하여 해체적 타이포그래피의 올바른 방향과 영화 타이틀 로고의 효과적인 시각 이미지 표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독특한 표현 테크닉으로 과장을 하거나 새로운 이미지 표현을 전달함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하는 다양한 실험들이 시도됨에 따라 영화 타이틀 로고의 표현 영역이 확대될 수 있고 더욱 강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2.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해체주의에 대한 선행연구와 해체주의의 확장에 따른 표현 경향을 분석의 기초로 삼아 영화 타이틀 로고의 해체적 표현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각 장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체적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해체주의의 형성과 개념적 특징을 알아보고 타이포그래피의 흐름과 해체주의의 확장으로 인한 해체적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특징을 기술하였다.

2, 여러 자료와 문헌을 통해 영화포스터에서의 타이틀 로고의 개념을 서술하였으며 한국영화 타이틀 로

고의 발전과정을 서술하였다.

3, 한국영화 타이틀 로고에서 다양한 해체적 타이포그래피적인 실험과 표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2000년 이후 한국영화 타이틀 로고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표현 형태의 해체, 표현 구조의 해체, 표현 형식의 해체로 분류하여 분석 하였다.

4, 마지막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에 따라 한국영화 타이틀 로고 해체적 표현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였다.

II. 해체주의 형성과 확장

1. 해체주의 형성과 개념적 특징

해체주의 사상은 사회, 문화, 예술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획일성, 동질성, 통일성 등의 합리주의적 전통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계속되는 새로운 조합의 추구에 관심을 두고, 기존 가치의 체계에 관한 근본적인 재인식을 주장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 프랑스의 철학자 자끄 데리다¹⁾에 의해 처음 논의되었으며 구조주의를 해체하여 그 속에 이미 자기 모순적이며 자기 부정적인 계기가 내재해 있음을 밝혀내고, 구조주의가 자기 스스로 분해되어 버렸음을 보여주는 해체주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였다.²⁾

그의 해체는 교묘하고 정교한 '내부로부터'의 해체이며, 해체를 통해 추구한 것은 닫힌 체계 내에서 단순히 지배받는 대상물이 되는 것을 거부하여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초월한 '열린 사고'와 '열린사회'라 할 수 있다.

해체주의는 불확실성 시대를 대변해 주는 새로운 사조로 대두되었고 데리다는 이를 통하여 이성, 질서, 총체성 등의 회복을 신봉하는 세계관을 해체하고 비이성, 무질서, 파편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새로운 형

1) 자끄 데리다(Jacques Derrida)는 구조주의의 기본명제를 근본부터 뒤튼 해체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1930년 알제리 수도 근교에 있는 엘비아르에서 출생하였다, 현재 파리의 고등사범학교(Ecole Normale Supérieure)의 철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저서로는 '그라마톨로지에 대하여(De la grammatologie)', '글쓰기의 차이(L'écriture et différence)', '목소리와 현상(La voix et la phenomene)' 등이 있다.

2) 서구 형이상학의 근본은 언제나 어떤 의미의 중심, 즉 고정된 근원, 진리, 목적, 절대를 전개하고 있지만, 데리다는 진정한 사유란 이러한 것들이 바깥에 있다고 확신하며, 구조주의자들이 그러한 의미가 현존한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고 자취이며, 대체물이라고 했다

태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해체주의의 이론의 개념은 인간주체, 언어적 자아, 역사적 인과성, 그리고 문화적 진실에 입각하여 종래의 형이상학적 체계에 대한 비평적인 견해를 표명한다.

해체주의의 개념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

첫째, 전체적인 ‘구조’보다는 ‘개체’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한다.

둘째, 사고의 경직화 및 문학과 학문의 과학화를 배격하며, 인본주의적 태도를 지향한다.

셋째, 역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표명하며 과거를 향수가 아닌 탐색의 대상으로 대한다.

넷째, 자아와 주체를 중요시 한다.

다섯째, 절대적 진리나 센터의 근원과 횡포는 거부하며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타자’를 인정하고 포용한다.

여섯째, 모든 기호(언어)와 그것들의

재현(Representation)능력을 불신한다.

	구조주의	해체주의
개체	개체의 특성 무시	개체의 존엄성 중시
학문	경직된 과학적 태도	인본주의적 태도
역사	하나의 구조, 체계를 분리해 내는 과정상 역사를 무시하는 비역사적 태도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사에 새로운 관심 표명. 과거는 향수가 아닌 탐색의 대상
주체	주체와 구조의 상호의존성	주체와 자아를 중시
틀 (전체성)	체계성, 조직성, 전체성, 이분법적 사고 강조	체계성, 전체성 거부. 타자의 인정, 로고스 중심주의 거부. 이분법적 사고 거부
언어	언어의 우월성, 재현능력인정	언어의 우월성 거부, 재현능력 거부

[표 1] 구조주의와 해체주의의 비교

2. 타이포그래피의 흐름과 해체주의의 확장

타이포그래피와 디자인은 직간접적으로, 알게 모르게 ‘해체(Deconstruction)’라는 개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왔다

‘자유타이포그래피’라고 알려진 미래파 타이포그래피의 마리네티는 구문파괴, 문장해체, 구두점의 억제, 거친 의성어 도입을 통해 매우 표현적인 방식으로

3) 김성근,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미진사, 1988, p.15

언어의 해방을 표방했다.⁴⁾



[그림 1] 필리포 마리네티 ‘떠들썩한 모임’(1919)
기욤 아폴리네르 칼리그램 중 ‘비가 오도다’(1925)
엘 리시츠키 펠리컨 잉크사를 위한 픽토그램(1924)

엘 리시츠키로 대표되는 구성주의 타이포그래피를 살펴보면, 산세리프체를 이용한 구성, 포토 몽타주 기법, 기하학적 구조, 비대칭적, 동적 조형의 특징을 갖는다.

바우하우스에서 시작된 타이포그래피는 단순하고 비대칭적인 레이아웃, 운동감속의 조화, 여백, 인식을 위한 라인, 사각형의 타이포그래피 요소, 심리학적 차원에서의 가능성, 강약 조절을 위한 눈의 흐름 지시 등을 들 수 있다.⁵⁾

1959년 시작된 뉴그래픽은 국제 타이포그래피 양식 발전에 기여했으며 스위스 타이포그래피는 성취된 질서와 세련성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화이트에 있어 대비를 이루는 활자의 이용, 그리드를 설정해 깨뜨리기, 대각선의 패션과 띠를 활자와 함께 쓰기, 다다이즘의 포토 몽타주 기법 등을 채용하기도 했다.

불규칙한 자간, 과거미술사 및 디자인사의 인용, 파스텔조의 온화한 색의 조화, 겹치는 이미지, 운동감이 많은 형태와 스크린 패턴과 선 등 여러 출처에서 다양한 종류의 형상을 빌려와 모방하고 인용하며, 혼성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20세기 초반의 추상회화의 흐름은 현대 타이포그래피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큐비즘을 비롯한 회화적 실험은 매체수단으로서 활자를 재인식하면서 새로운 표현을 개발했다.

보는 방법의 변화와 언어 해방으로서의 개념 변화는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특징이 되었다.

4) 안상수. 타이포그래피적 관점에서 본 이상 시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24

5) 김지현 편역, 타이포그래피 커뮤니케이션, 서울, 창지사, 1999, p.155

질서와 명료성을 중시하는 국제 양식의 타이포그래피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형태의 타이포그래피, 계단, 선, 넓은 자간, 여러 굵기의 글자체 함께 쓰기 등을 내세운 볼프강 바인가르트의 실험이 해체적 타이포그래피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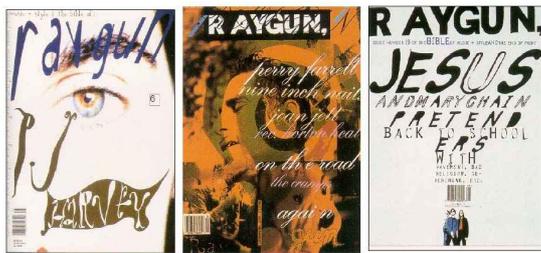
그는 직각적인 구성원리를 거부하면서 풍부한 시각적 효과를 지닌 유희적이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이룩한 것이다.

글자체의 파괴는 과거 형이상학의 붕괴를 추구하는 해체의 한 방식이며 로고스 중심주의⁶⁾에 대한 해체이다.



[그림 2] 볼프강 바인가르트
'타이포그래피세 모나츠
블라에터지의 안내란(1974)

또한 글자로서의 의미가 상실된 파괴된 환자의 조각들은 데리다의 흔적(trace)과 산중(dissemination)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데이비드 카슨의 겹치거나 잘려나간 글자, 흔적만 남은 글자, 오타가 교정되지 않은 느낌 등은 데리다의 차연(differance)과 산중(dissemination), 흔적(trace)의 개념을 전략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림 3] 데이비드 카슨 레이건지

6) 로고스 중심주의는 '음성 중심주의'라고도 하며, 음성을 문자보다 우위에 둔 사고방식으로 플라톤에서부터 내려온 주요개념이다. 데리다는 문자언어를 음성언어의 보충으로 여겨 순전한 음성적 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고 로고스 중심주의=음성 중심주의=현존의 형이상학이라는 삼위일체를 해체하려 했다. 오덕조 역, 해체주의, 서울 청라출판사, 1996, p.88

해체주의 타이포그래피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다양한 텍스트의 형태와 이질적인 성격들이 서로 간섭하고 보충되고 반복되고 중첩하고 있으며,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이미지들도 이전의 이미지와 글자라는 이분법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해체는 말 그대로인 해체로 정의되지는 않는다.

타이포그래피 분야에서의 해체는 전 시대에 대한 부정이 아닌 오히려 전시대의 것들에 잠재해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재평가해 보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⁷⁾ 실제 19세기말 이래로 타이포그래피는 역사상 존재해 온 여러 양식을 절충하거나 조합하는 식의 혼란 속에서 실험을 계속해 오고 있다.

III. 영화포스터와 영화 타이틀 로고

1. 영화 포스터에서의 타이틀 로고

영화포스터는 타이틀 로고, 카피, 메인 비주얼 등의 요소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타이틀 로고(Title Logo)란 영화의 제목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고유한 성질을 가진 문자체로 나타난다.

영화 전체에 있어 가장 비중 있는 문자 상징이다.

대중들은 타이틀 로고와 접근됨으로써 영화의 제목을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이틀 로고가 제작되어질 때는 단순한 미적인 느낌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 제작되어야 한다.

영화포스터에서의 타이틀 로고는 그 영화의 내용, 장르 등 총체적인 정서를 함축하고, 긴장감을 나타내어 희극은 희극다운 즐거운 형태와 의미로, 비극은 비극다운 감정을 전달하는 조형을 시도하여 생생한 매력과 함께 가독성(Legibility)과 판독성(Readability)을 고려하여야 한다.

타이틀 로고는 포스터 외에도 영화의 자막, 즉 타이틀에도 등장을 하는데 타이틀(Title)이란 표제, 제목, 직함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영화에서 지금은 타이틀로 통용되고 있다.⁸⁾

7) 이은아,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본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45

8) 황혜정, 슬바스의 영화 타이틀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 예술

2. 한국 영화 타이틀 로고의 발전

초창기 영화의 고지(告知)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없는 글자로 된 단순한 형태였다.

특히 타이틀 로고는 다른 시각물에 비해 레터링, 즉 캘리그래피(Calligraphy)가 일찍 사용되었다.

1930년대 이후 1950년대까지의 타이틀 로고는 필서체 형식에 가까운 글씨체로 조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으며 한글에 비해 한문이 많이 사용⁹⁾되었고 시대가 갈수록 향상된 개성적인 글씨체가 나타났다.

이 시기에 보이는 로고타입은 일본에서 들어온 한자 명조체의 상당한 부분의 영향을 받았다.

1947년 가로쓰기가 도입되면서 쓰기방향이 변화된 로고타입도 등장한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포스터인 1932년작 ‘님자없는 나룻배’는 이원모체의 영향을 받은 글꼴로, 강한 획의 구성이 돋보인다.(그림 4)

1960년대에는 한국영화의 전성기로 많은 포스터들이 제작되었는데 타이틀 로고에 개성적이고 입체적인 형태의 글씨체가 등장하였고 글자의 조형성이 조금씩 갖추어지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부터는 영화 타이틀 로고에 정형화된 틀이 보여진다.

가로쓰기도 완벽하게 정착되어 자유롭게 쓰여지며 공간을 알맞게 꾸미는 시도를 볼 수 있고 ‘언제나 타인’이나 ‘미워도 다시 한번’에서는 아직도 한자와 일본글자의 영향을 받은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4] 님자없는 나룻배(1932), 언제나 타인(1969), 미워도 다시한번(1969)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8, p.3
9) 김인화, 한국 영화 포스터의 변천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디자인 대학원, 1997, p.42

1970년대는 사진식자에 의한 서체가 타이틀 로고와 카피에 많이 사용되어진다.

사진식자기나 자모조각기의 도입과 최정호와 최정순의 노력으로 여러 서체들의 형태나 공간 배치가 확립된 시기의 특성에 맞추어 로고타입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눈에 띠며 ‘꽃띠여자’같이 조형요소를 활용하는 등 표현의 확장을 꾀한 시기이다.



[그림 5] 꽃띠여자(1979)

1980년대 초까지 영화 타이틀 로고에서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글자 사용이 나타났고 대체적으로 비조형적인 것이 많았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들어서 타이포그래피적인 특징이 부각되며 다양한 표현이 돋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상쓰기체의 표현이나 타자기의 서체를 그대로 활용한 것들이 나타나며 카피나 부수적인 요소들은 대부분 명조와 고딕체로 통일되어 사용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전문적인 타이포그래피의 등장으로 조형적이고 독특한 표현이 나타나고 영화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리는 다양한 서체의 개발로 영화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글꼴을 다양하게 부리거나 영화내용에 맞는 디자인 적용이 틀이 잡혀 다양한 방향으로의 발전이 있어 왔는데 한글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탈네모꼴의 글자가 영화 포스터에 대거 출현하였다.

그 예로 “삼공일 삼공이”는 이 시기에 개발되어 있던 탈네모꼴 서체의 구조를 보인다.



[그림 6] 삼공일 삼공이(1995)

이는 대중들의 시각과 사고의 차원을 한층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지던 영화의 타이틀 로고가 디자인을 통해 새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다양한 서체의 개발로 조형적인 글자가 등장하면서 포스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시기였다. 9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영화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영화 포스터의 예술성 또한 무한한 발전을 하고 있고 타이틀 로고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이 행해지고 있으며 기존서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느낌을 내포한 캘리그래피의 서체 양식도 유행하고 있다.

살인의 추억 태극기 휘날리며

[그림 7] 살인의 추억(2003), 태극기 휘날리며(2004)

IV. 한국영화 타이틀 로고의 해체적 표현 경향 분석

해체는 철학적 근본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기존 가치에 대해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파괴를 시도하며 이를 디자인 분야에서 받아들여 확장된 상황 및 결과물을 해체디자인이라고 부른다.

해체주의에서 확장된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독특한 표현 테크닉으로 과장을 하거나 새로운 이미지 표현을 전달함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하며 문자의 중첩과 해체, 이미지의 중첩과 해체, 그리드파괴, 불협화음과 무조화, 형태의 왜곡과 단편화, 병렬배치 등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해체주의에 대한 선행연구와 해체주의의 확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에밀 루더의 타이포그래피 표현의 핵심적 요소, 제임스 크레이그와 윌리엄 배빙튼의 타이포그래피의 기본 규칙 등의 이론적 토대에 근거하여 영화 타이틀 로고의 해체적 표현 경향을 표현 형태의 해체, 표현 구조의 해체, 표현 형식의 해체의 관점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상영된 대표적 한국영화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해체주의의 표현 경향을 보이는 영화 타이틀로고를 분석하였다.

1. 표현 형태의 해체

글자 자체의 형태를 변형하여 표현하는 해체 작업으로 글자를 분해하거나 변형, 합성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글자의 자소를 분리하여 각기 다른 서체를 합성시켜 전혀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따라서 표현 형태의 해체는 글자를 분해하고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실험으로 볼 수 있다.

1) 글자의 파괴와 분열

‘조폭마누라’는 2001년 개봉한 액션&코미디영화로 1편에서 3편까지 제작될 정도로 흥행작이다.

글자의 파괴현상으로 표면의 분열이 일어난 경우로 뜯겨져 나간 글자의 파편들이 분열의 형태를 보인다. 글자 표면의 해체현상으로 가독성을 해치지 않으며 제목에서 느껴지는 폭력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2002년 개봉한 ‘폰’은 정체불명의 괴전화로 인한 공포를 다룬 호러영화로 타이틀로고 자체에서 긴장감과 공포감의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글자표면이 분해된 질감효과와 마치 손톱으로 긁은 듯하게 글자가 뜯겨나간 파괴 현상을 볼 수 있다.

영화의 내용표현이 적절하며 시각적 주목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 8] 조폭마누라2(2003), 폰(2002)

2) 자소의 분해와 변형

‘귀신이 산다’는 2004년 개봉된 코미디 영화로 타이틀 로고는 글자표면의 분열현상이 보이며 자소가 분해되어 기울어지거나 재구성하여 적당한 리듬감이 보여지며 이의 ‘ㅇ’글자에 피를 흘린 듯한 형태의 개성 있는 표현이 보인다.

이러한 흘뿌리는 표현의 해체주의의 ‘산중’이라는 글쓰기 방법에서 차용된 형태의 해체표현으로 글자들을 여기저기에 흘뿌림으로서 메시지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웰컴 투 동막골’은 2005년 개봉된 전쟁영화로 기존서체가 아닌 독특한 느낌의 캘리그래피로 타이틀 로고로서 웰의 ‘ㄱ’만 떼내어 반전시켜 유희적인 자소의 변형이 나타난다. 최근의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두드

러진 특징으로 캘리그래피적인 표현을 통해 손글씨의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시선을 집중시켜 타이틀 로고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메시지에 담긴 의미나 감정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장점이 되고 있다.



[그림 9] 귀신이 산다(2004), 웰컴투동막골(2005)

2. 표현 구조의 해체

표현 구조의 해체는 글자나 문장의 분절과 간섭으로 이야기될 수 있으며 무표정한 글자구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자간을 넓히거나 좁히며, 상하좌우로 자유롭게 구성함으로써 시각적 리듬감을 추구하기도 하며, 서로 공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타이페이스들을 혼합하거나 포인트 사이즈와 행간을 줄이거나 극단적 평체를 쓴 텍스트를 중간에 배치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정형화된 구성을 거부하고 글자의 실험적인 구성을 한다.

1) 글자크기의 합성과 배열의 변화

글자크기를 다양하게 하거나 배열에 변화를 주는 방법은 글줄의 정렬성과 가독성은 떨어지게 되지만 유기적인 형태를 창출하여 리듬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메시지가 갖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

표면의 질감을 거칠게 표현하고 이탤릭체와 모션효과를 표현한 '공공의 적'은 공공과 적의 상반된 연결 관계를 강조하며 중간 연결어인 '의'를 작게 표현하여 글자크기에 변화를 통해 로고를 강조한다.

'오! 브라더스'는 2003년 개봉한 코미디 영화이다. 글자크기의 대비가 큰 경우이며 자소의 변화와 독특한 모아쓰기로 개성 있는 타이틀 로고를 만들고 있다. '오'의 크기를 강조하여 시선을 주목시키며 이러한 글자크기의 강조는 보는 이로 하여금 글자가 지각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글자의 크기조절을 통해 어느 요소를 강조하거나 약하게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쓰'을 강조한 로고로 '싸움의 기술'은 2006년 개봉된 액션&코미디 영화로 자소와 글자의 크기, 높낮이를 적절히 조정하여 리듬감을 표현하고 표면의 분열현상이 일어난다. 기준선을 무시하여 리듬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 10] 공공의 적(2002), 오브라더스(2003), 싸움의 기술(2006)

2) 타이페이스 혼용

타이포그래피 표현에 있어서 메시지에 부합하는 적합한 폰트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서로 다른 것처럼 모든 폰트는 저마다 조금씩 다른 개성과 분위기를 갖고 있다.

'달콤 살벌한 연인'은 2005년 개봉된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서로 다른 타이페이스가 혼용되어 제목에서 느껴지는 달콤과 살벌의 상반된 느낌을 각각의 서체에 표현하고 있다.

'달콤'과 '연인'은 부드러운 고딕계열의 서체로, '살벌한'은 명조계열을 쓰고 있는데, 살의 'ㅅ'획을 길게 빼어 칼날 같은 형태로 변형시켰으며 중간행의 글자를 로테이트하고 그 주위에 글자의 부스러기들을 피처럼 흩뿌려진 산중의 해체표현으로 제목에서 느껴지는 상반된 느낌을 잘 표현한 예이다.



[그림 11] 달콤살벌한 연인(2005)

10) 롱카터, 원유홍 역, 실험타이포그래피, 안그라픽스, 1999, p.29

3. 표현 형식의 해체

표현 형식의 해체는 형태의 해체, 구조의 해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표현으로 해체는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형식으로만 규정되지 않는다.

이미지와 타이포그래피의 중첩, 형과 텍스트의 결합,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레이아웃, 다양한 텍스처의 이미지를 활용해 새로운 시각적 질감을 도출시킬 수 있으며, 비주얼스캔들, 회화적인 타이포그래픽 표현 등을 포함한다.

1) 형과 텍스트의 중첩과 결합

‘화산고’는 2001년 개봉한 무협, 액션물로 뜯겨져 나간 한문글자와 둥근박스 안에 각인된 듯한 한글을 중첩시켜 표현한 ‘화산고’의 로고는 탈형태의 특징과 탈형식의 특징을 동시에 취한다.

형과 텍스처는 서로 결합되어 해석되어지며 한자로 표현된 형은 단순한 형이 아니라 글자와 묶여져 동등한 위치를 갖는다.



[그림 12] 화산고(2001)

2) 고정관념 탈피의 레이아웃

‘엽기적인 그녀’는 2001년 개봉된 코미디영화로 타이틀로고를 반전시켜 반복해 씬으로서 일반적인 형식을 탈피하고 있다.

이러한 레이아웃은 영화포스터를 강조하며 주목률을 높이고 있다. 영화포스터나 타이틀 로고뿐 아니라 모든 디자인 분야에서 1990년대 이후 다양한 레이아웃의 실험을 통해서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13]엽기적인 그녀(2001)

V. 결론

효과적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 형태의 해체, 표현 구조의 해체, 표현 형식의 해체라는 관점에서 분석 결과 한국영화 타이틀 로고에 해체주의의 확장에 따른 시각적 특징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친편일률적으로 정형화된 표현에서 탈피하여 독창성과 실험성을 기반으로 표현의 갈래가 다양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글자의 파괴와 분열현상으로 뜯겨져 나간 글자의 파편들이 분열의 형태를 보이며 글자 표면의 해체현상이 일어나고 자소가 분해 되거나 해체주의의 ‘산종’이라는 글쓰기 방법에서 차용된 형태의 해체표현이 글자들을 여기저기에 흩뿌림으로서 메시지를 강화하는 방법들이 쓰이고 있다.

글자크기의 대비를 크게 하고 자소의 변화와 독특한 모아쓰기로 개성 있는 타이틀 로고를 만들고 있으며 타입페이스 혼용과 배열의 변화 등으로 유기적인 형태를 창출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메시지가 갖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타이틀 로고가 형태와 형식이 모두 해체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며 형과 텍스트의 중첩과 결합으로 새로운 시각적 질감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로고를 반전시키거나 반복해 씬으로서 고정관념 탈피의 레이아웃이 보이는데 이러한 레이아웃은 영화포스터를 강조하며 주목률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영화포스터나 타이틀 로고뿐 아니라 모든 디자인 분야에서 1990년대 이후 다양한 레이아웃의 실험을 통해서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체의 표현을 차용함에 가독성과 판독성을 해체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해체적인 표현으로 인해 대중들로 하여금 타이틀 로고에 주목하게 하며 머릿속에 인지성을 높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해체적 표현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수단이며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면 시각적 주목성으로 다른 디자인과 차별화 할 수 있다.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해답이 해체만은 아니지만 새로운 방향을 향한 혼란의 시대에 앞으로 나아가게 될 새로운 방향이 무엇일지 모르는 과도기적 상황에

서의 해체주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화 타이틀 로고에 나타나는 해체적 표현경향을 한 시대의 유행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발전적 가치와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보다 근원적이고 새로운 사고와 연구를 통하여 그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영화 타이틀 로고의 다양한 가능성을 해체주의 이론에 대입함으로써 다양한 담론을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관습적인 문화의 경계를 벗어나 새로운 변화로서의 해체주의 표현경향은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며 효과적인 시각적 즐거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디자인의 합목적성을 벗어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성을 통한 교감의 시도와 정보와 문화의 소통은 미래의 트렌드에 부합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성근,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미진사, 1988
- 2) 김지현 편역, 타이포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서울 창지사, 1999
- 3) 룽카터, 원유홍 역, 실험 타이포그래피, 서울 안그라픽스, 1999
- 4) 앙마누엘 틀레, 영화의 탄생, 서울 시공사, 1996
- 5) 오덕조 역, 해체주의, 서울 청람출판사, 1996
- 6) 한국영화학 교수협의회, 영화란 무엇인가, 서울 지식산업사, 1992
- 7) 김인화, 한국 영화포스터의 변천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8) 신연호, 대중매체의 특성과 그 역할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9) 안상수, 타이포그래피적 관점에서 본 이상 시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10) 이윤경, 유희 자극을 주는 해체적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표현연구,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11) 이은아,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본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12) 장동근,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해체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13) 정유경,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나타나는 해체주의적 표현에 관한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14) 정유경, 타이포그래피의 반복 표현에서 파생되는 시각적 리듬감 유형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15) 최석, 북 아트 디자인에 있어서의 해체주의적 성향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5.no.3, 2004
- 16) 최종현, 한국영화 타이틀로고의 시각적 유희 표현에 관한 연구, 단국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17) 황혜정, 솔바스의 영화 타이틀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18) Jason Mills · Daniel Donnelly, Webworks Typography, USA : Rockport, 1999
- 19) Kinross, Robin, Modern Typography, London : Hyphen Press, 1992
- 20) Lewis Blackwell, 20th Century Type. London : Lancelotti King Publishing , 1992
- 21) Prints best logos and symbol, New York : Rc Publications, 1990
- 22) Rick Poynor, Typography now the next wave, USA : Why not associates, 1992
- 23) Roger Walton Typographics, USA : HBI, 1995
- 24) Type in Motion, Tokyo : Graphic-sha, 1999